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4년 3월 생산은 전월대비 2.1% 감소(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2.1% 감소하였음.
 - －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0.2% 증가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음료에서 늘었으나,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5%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2024년 3월 소비는 전월대비 1.6%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6.6%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 승용차 등 내구재(3.0%)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6.6%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4.8%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8.7%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0.8% 감소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1	2022	2023	2022				2023				2023 3월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2월p	3월p
생산	전 산업	5.4	4.6	1.0	1.2	1.2	0.3	-0.7	0.1	0.6	1.0	0.7	0.5	1.1(1.7)	-2.1(0.2)
	광공업	8.5	1.0	-2.6	2.5	-2.2	-3.6	-4.8	0.4	2.6	1.3	2.2	3.5	2.9(4.6)	-3.2(0.7)
	제조업	8.8	0.9	-2.6	2.3	-2.2	-3.7	-4.9	0.3	3.0	1.3	2.2	3.8	3.0(4.9)	-3.5(0.4)
	건설업	-6.7	2.8	7.3	-1.5	1.5	1.5	4.3	2.8	1.1	1.1	-2.5	-5.0	-1.0(0.4)	-8.7(-2.1)
	서비스업	5.0	7.0	3.2	0.6	3.3	1.6	0.3	1.0	0.0	1.0	0.3	-0.7	0.5(0.9)	-0.8(1.0)
소비	소비재 판매	5.8	-0.3	-1.5	-0.9	-0.7	0.8	-1.5	0.6	-0.5	-1.9	0.4	-1.6	-3.0(1.1)	1.6(-2.7)
투자	설비투자	9.6	3.3	-5.4	1.8	-1.5	9.6	-1.5	-8.0	1.0	-3.1	3.1	-1.3	9.6(-0.9)	-6.6(-4.8)
물가		2.5	5.1	3.6	1.6	1.9	1.1	0.4	1.1	0.6	1.0	0.7	0.2	0.1(3.1)	0.0(2.9)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4월, 2024년 3월, 2024년 4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4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음(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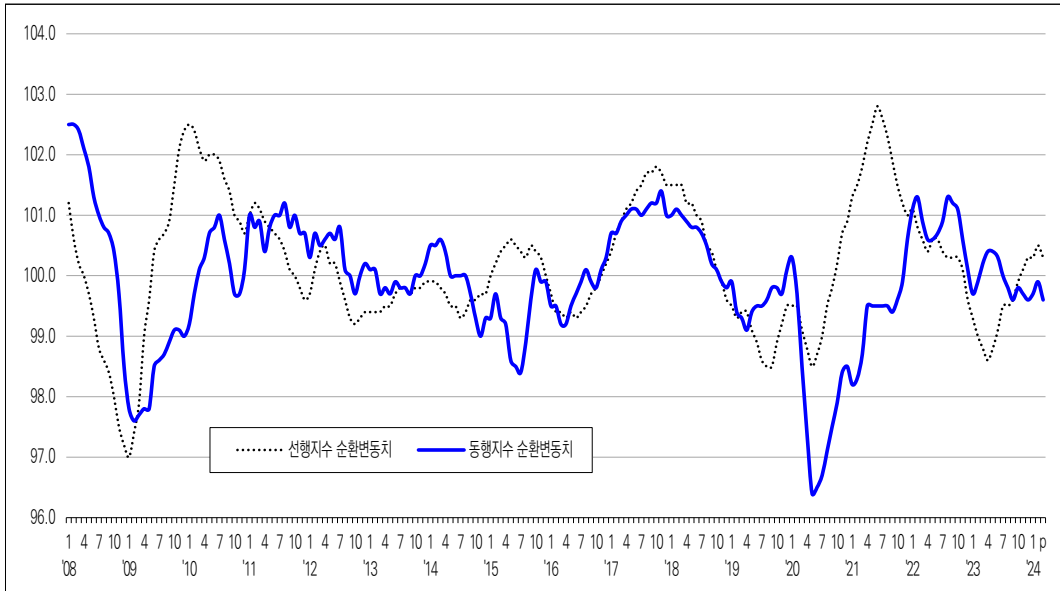
○ 2024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100)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음(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0.9%), 음식·숙박(0.3%), 기타 상품·서비스(0.5%), 오락·문화(0.5%), 교육(0.3%), 주류·담배(0.3%)는 상승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통신은 변동이 없었으며, 의류·신발(-0.1%), 식료품·비주류음료(-1.2%)는 하락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5% 하락하였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음.

◆ 2024년 3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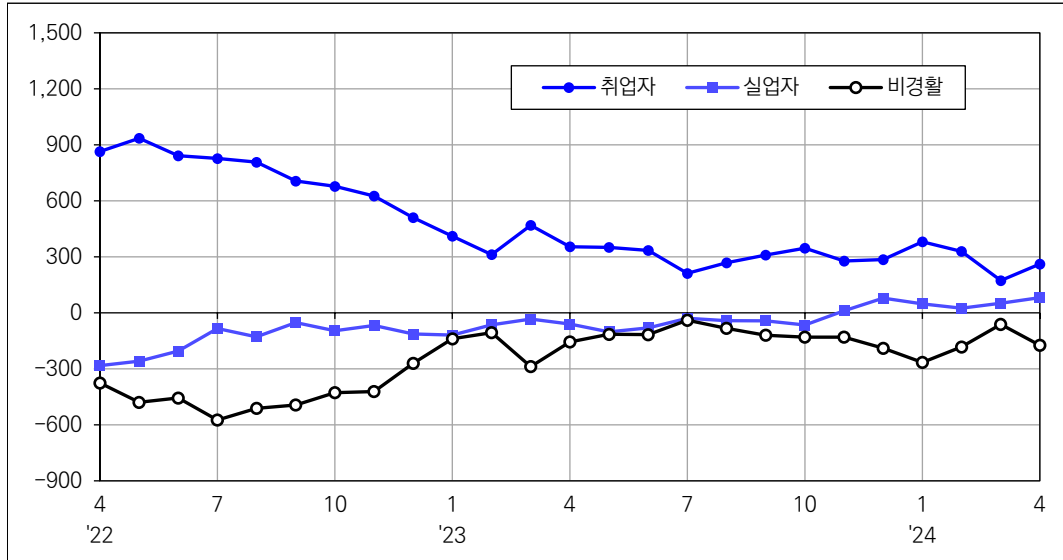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세 지속, 전월대비 취업자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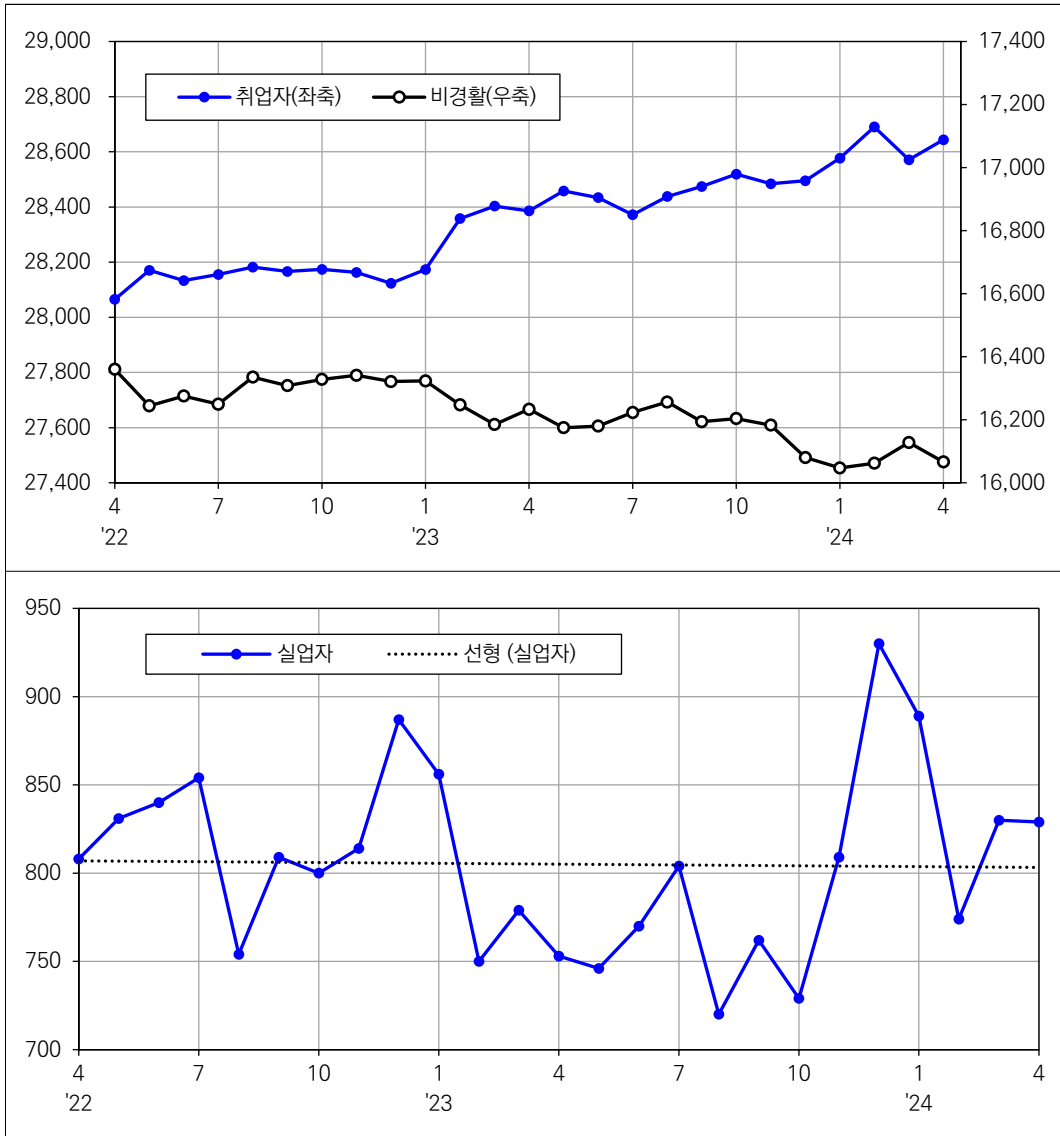
- 2024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천 명 증가하였음(전월대비¹⁾ 7만 3천 명 증가).
 - (산업별) 4월 제조업은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전월대비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였음. 서비스업은 사회복지, 전문과학, 운수창고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사업시설은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연령별) 30대 여성 위주의 취업자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50대는 남녀 모두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증가하였음.
 -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4월 실업자는 8만 명 증가하였고 3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음(3월 +5만 2천 명). 전월대비 제조업 등에서 실업자가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 4천 명 감소하여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음(3월 -6만 2천 명).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4월은 전월대비 30대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5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 30대 여성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사업시설, 협회단체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 50대 취업자는 2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남성은 건설업과 사업시설업, 여성은 도소매와 사업시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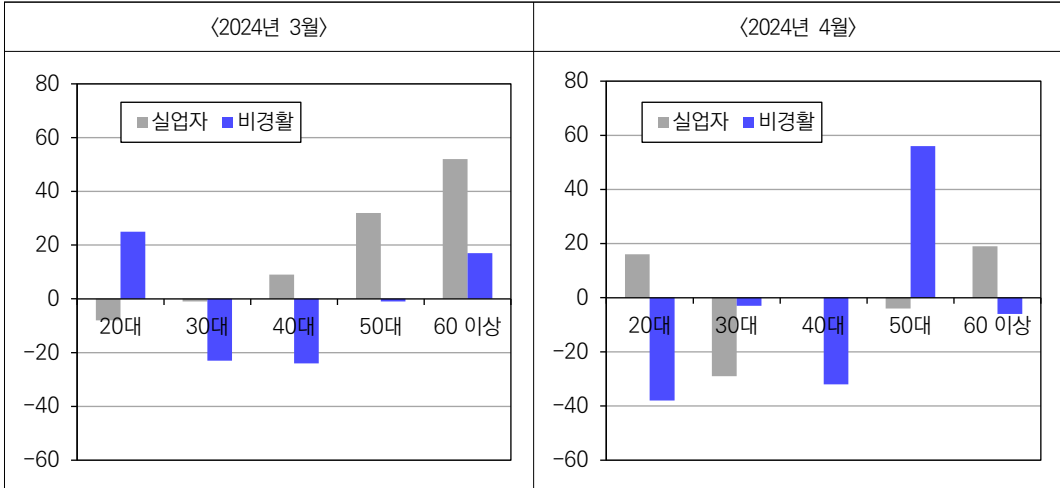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취업자	-31	-34	-11	(23)	-29	-97	-77	(20)	70	92	132	(40)
실업자	4	7	7	(0)	-32	-43	4	(47)	26	17	-6	(-23)
비경황	27	3	-1	(-26)	-163	-65	-115	(-68)	-135	-112	-136	(-11)
실업률	3.8	5.4	4.7	(-0.7)	-0.7	-0.8	0.3	(1.1)	0.4	0.2	0.2	(-0.4)
고용률	-1.4	-1.5	-0.5	(1.0)	1.5	0.4	0.8	(0.4)	1.1	1.3	1.9	(0.6)
	40대				50대				60세 이상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취업자	-61	-79	-90	(-11)	83	59	17	(-42)	297	233	292	(59)
실업자	-6	5	11	(6)	-4	36	26	(-10)	36	30	39	(9)
비경황	-95	-69	-114	(1)	-38	-29	-19	(62)	7	209	43	(-69)
실업률	-0.1	0.1	0.2	(0.1)	-0.1	0.5	0.4	(-0.1)	0.4	0.4	0.5	(0.1)
고용률	0.6	0.4	0.4	(0.0)	0.5	0.1	-0.5	(-0.6)	0.6	0.2	0.6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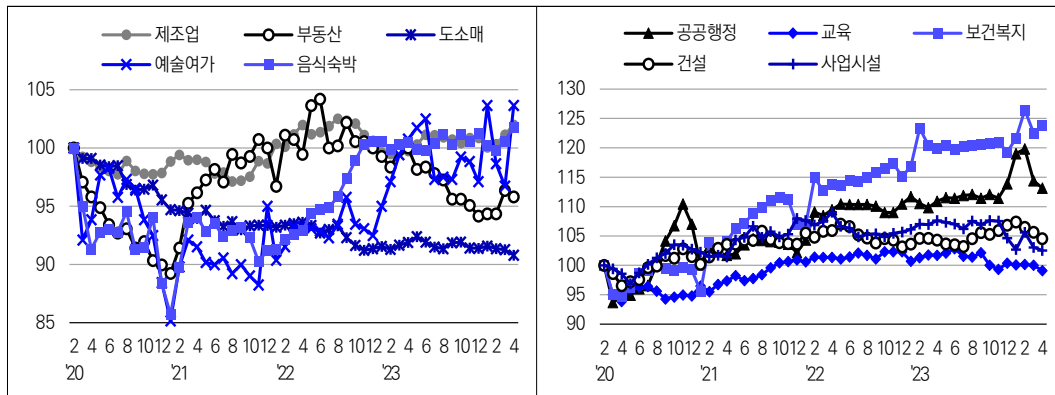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음식숙박, 보건복지, 제조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도소매, 공공행정, 사업시설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 계절조정계열(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33	-50	5	-33	-7	56	16	1.1
광업	1	0	1	1	0	0	1	16.7
제조업	38	49	100	12	36	37	85	1.9
전기·가스·증기	9	7	11	4	-5	0	-1	-1.1
수도·원료재생	-5	-11	-9	3	1	-3	1	0.7
건설업	36	22	5	-18	-17	-22	-57	-2.6
도매 및 소매업	2	-14	-39	-8	-3	-17	-28	-0.9
운수 및 창고업	54	58	52	9	10	6	25	1.5
숙박 및 음식점업	-2	7	29	-10	19	27	36	1.6
정보통신업	80	67	68	34	-6	-11	17	1.6
금융 및 보험업	1	-32	-2	0	-16	13	-3	-0.4
부동산업	-21	-19	-23	0	11	-3	8	1.5
전문·과학·기술	78	98	45	11	27	-24	14	1.0
사업시설관리지원	-19	-51	-66	39	-34	-7	-2	-0.1
공공행정·사회보장	98	52	26	9	-60	-14	-65	-4.9
교육서비스업	-22	-33	-49	2	-3	-17	-18	-1.0
보건 및 사회복지	72	50	93	115	-93	33	55	1.9
예술·스포츠·여가	8	-14	15	-26	-10	36	0	0.0
협회·단체·수리·기타	-21	-9	-3	-19	9	-1	-11	-1.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23	-6	3	-3	7	5	9	1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2024년 4월은 전월대비 임시직 취업자는 증가로 전환하였고, 일용직은 감소로 전환하였음.

－ 상용직은 보건복지업에서 증가로 전환하였고,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감소로 전환하였음.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상용직	357	286	293	43	42	61
임시직	207	97	200	229	-157	55
일용직	-177	-168	-147	-49	26	-2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38	-1	0	4	-26	-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60	-35	-94	-39	-7	-23
무급가족종사자	-36	-7	10	-15	41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농림어업	10	11	13	2	2	1	-8	-13	-1	0	5	10	-7	-33	-22
제조업	8	18	48	27	22	52	0	-9	-7	8	10	10	2	7	-4
건설업	35	12	-2	25	27	38	-56	-40	-49	21	14	13	8	5	3
도소매	65	57	57	-24	-52	-39	-9	-6	-9	-15	-18	-13	-19	0	-32
운수창고	44	31	35	15	25	21	-11	-10	-10	4	2	5	0	6	-1
음식숙박	-21	1	-2	50	44	59	-37	-37	-2	13	5	-4	-5	-13	-22
정보통신	44	28	42	29	24	13	-1	-1	-5	-1	-3	-3	11	20	20
금융보험	-18	-39	-2	17	8	5	0	-1	-2	-1	-3	0	2	2	-4
부동산	-14	-11	-5	-19	-19	-14	1	1	1	7	6	-2	3	4	-3
전문과학기술	99	104	39	-4	6	14	-7	-9	-5	8	-2	-8	-17	-3	3
사업관리지원	12	12	-8	13	-6	12	-25	-32	-45	-8	-11	-11	-9	-12	-11
공공행정	63	25	10	39	23	17	-4	3	-1	-	-	-	-	-	-
교육서비스	25	44	39	-48	-77	-77	5	2	-1	1	1	0	-3	0	-9
보건복지	-14	-5	19	82	65	86	10	2	-2	-4	-10	-10	-1	-3	1
예술스포츠	17	7	10	1	-22	-14	-9	-5	-4	1	0	7	-5	3	10
협회단체	-9	-10	0	19	27	25	-14	-13	-12	4	2	6	-20	-14	-22
가구 내 고용	1	0	-1	-15	-4	2	0	1	4	-	-	-	0	-2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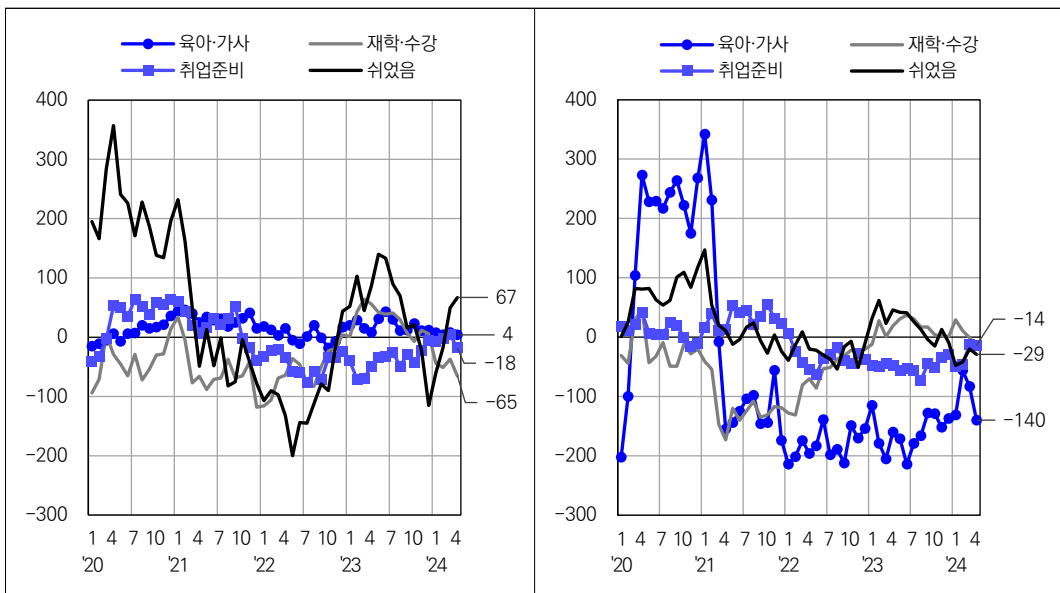
- 임시직은 사업관리업에서 증가로 전환하였고, 일용직은 대다수의 산업에서 감소세를 보였음.

○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7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3만 2천 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준비(-1만 8천 명)'에서 감소로 전환하였고, 여성은 20만 6천 명 감소하였으며, '육아가사(-14만 명)'에서 감소세가 확대되었음.

[그림 4] 성별(좌: 남자, 우: 여자)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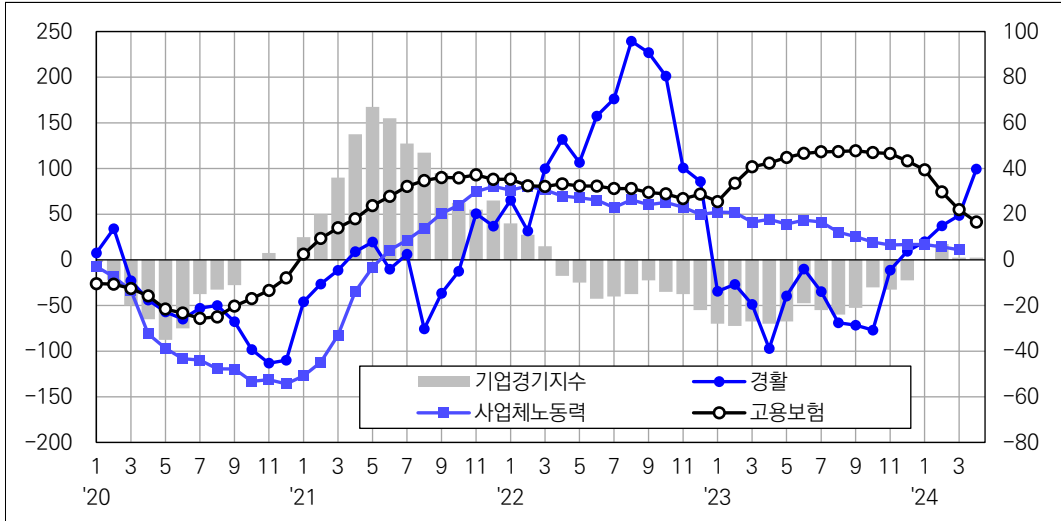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 소폭 둔화

○ 2024년 4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전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하였음(3월 +4만 9천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계속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3만 7천 명 증가하였음.

[그림 5]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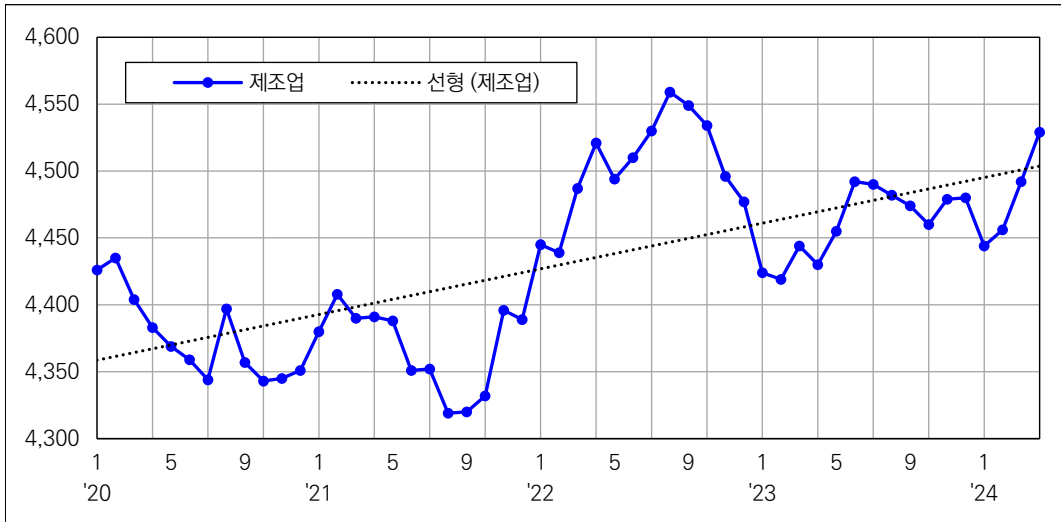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6]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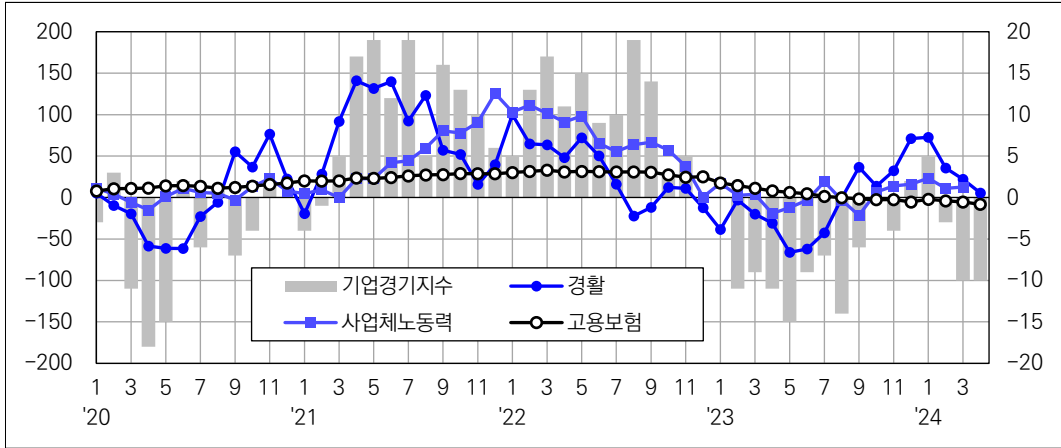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4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건설업 피보험자는 8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경찰 취업자와 사업체 종사자도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그림 7]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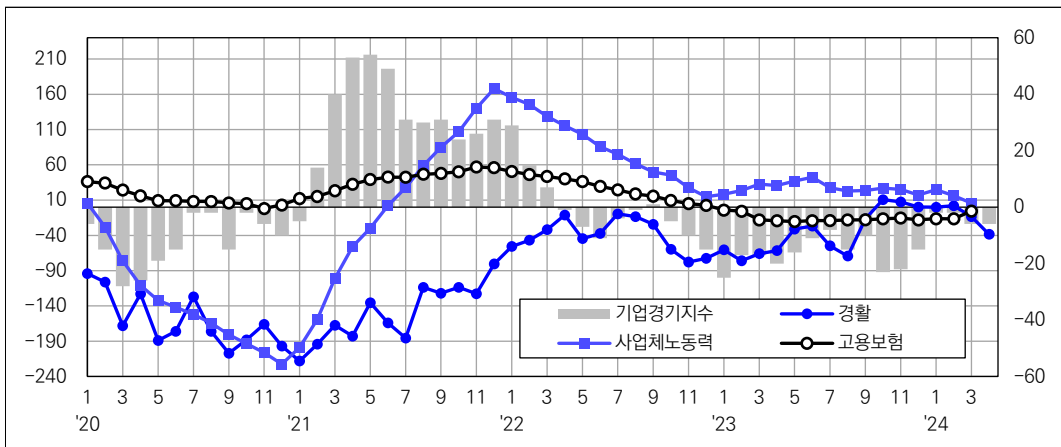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4년 4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3만 7천 명 증가하여 전월과 비슷함(3월 +13만 9천 명).

- (도매소매) 경찰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사업체노동력 종사자도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운수창고)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피보험자도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사업시설) 경찰 취업자는 감소하였고 기업경기지수도 감소하였음.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는 증가하였음.

[그림 8]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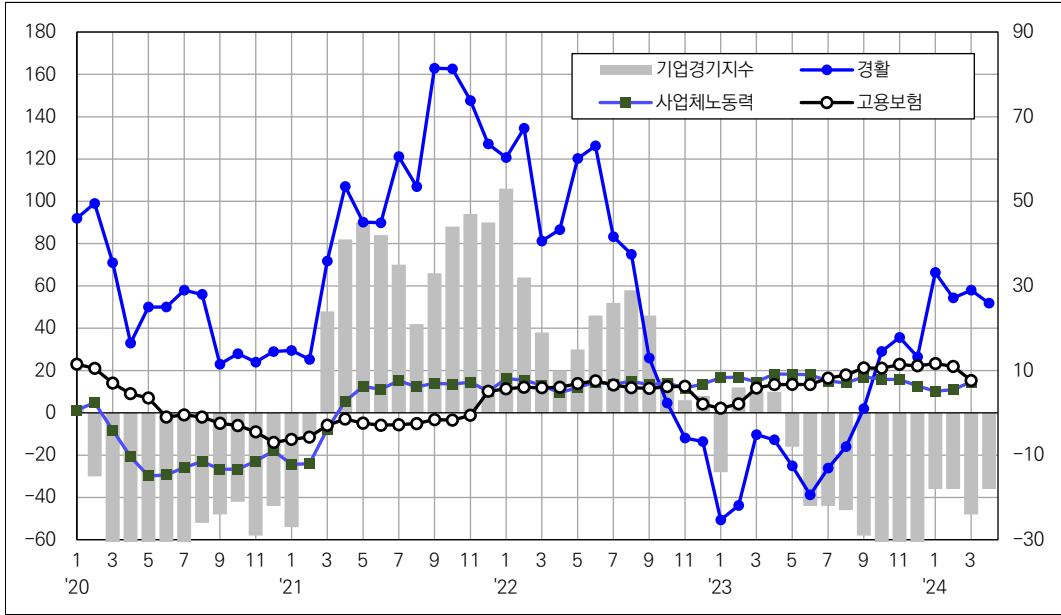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9]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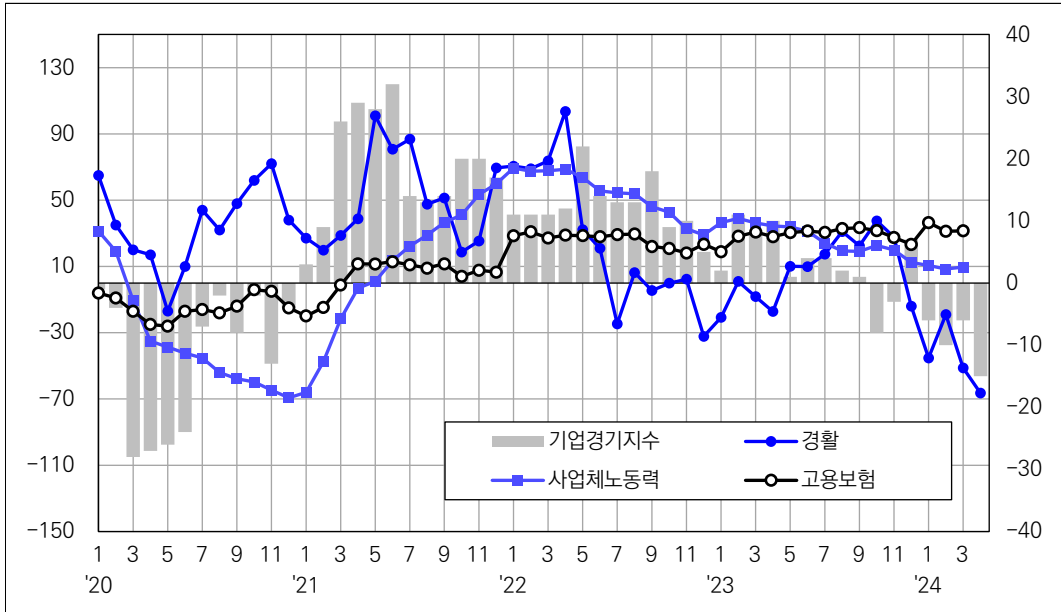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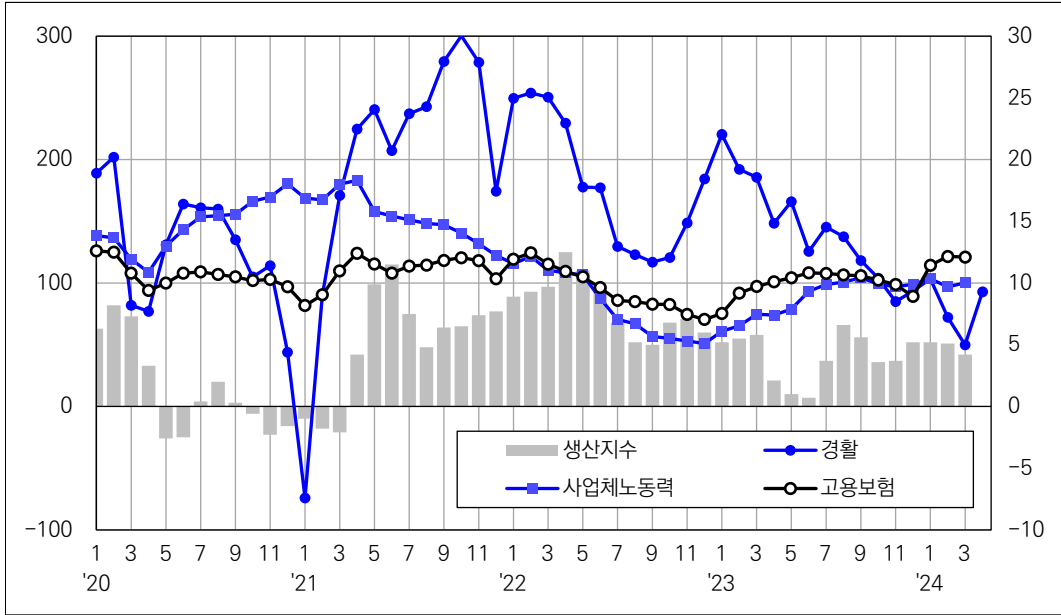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황지영,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4년 2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대비 11.5% 상승

- 2024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5만 1천 원(11.5%)이었음.
 - 2024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463만 2천 원)과 일용근로자 임금(175만 1천 원)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11.8%, 6.1% 상승하였음.
 - 근로자의 임금상승 폭이 컸던 이유는 설 명절이 2023년에는 1월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월에 포함되어 설 상여금 등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63.8%)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하여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데서 기인함.
 - 상용직 근로자 임금총액대비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년동월대비 37.8%임.
- 2024년 (1~2월 평균) 임금총액은 432만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5% 상승하였음.
 - 이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폭 확대(-9.8%p) 및 정액급여 증가폭 둔화(-0.7%p) 영향이 컸음.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19.4%p)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특히 대규모 제조업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폭이 컸음(-36.5%p).²⁾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폭 둔화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0.8%p)에서 나타났고, 특히 중소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5.4%p), 제조업(-2.1%p)의 정액급여 둔화폭이 컸음.
 - 상용직 근로자 임금총액대비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년동평균대비 38.9%임.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4년 2월 실질임금 전년동월대비 8.2% 상승

- 2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폭 둔화와 명목임금 상승폭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7.4%p 상승하였음.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는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20	2021	2022	2023	2023		2024	
					1~2월	2월	1~2월	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527 (1.1)	3,689 (4.6)	3,869 (4.9)	3,869 (4.9)	4,297 (2.1)	3,901 (5.6)	4,320 (0.5)	4,351 (11.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19 (0.4)	3,893 (4.7)	4,095 (5.2)	4,095 (5.2)	4,574 (2.5)	4,320 (0.5)	4,632 (11.8)
	정액급여	3,077 (2.2)	3,181 (3.4)	3,319 (4.3)	3,319 (4.3)	3,430 (4.2)	3,377 (4.4)	3,550 (3.5)
	초과급여	200 (-0.9)	208 (3.7)	220 (5.7)	220 (5.7)	208 (0.9)	211 (-0.2)	226 (8.5)
	특별급여	441 (-9.9)	504 (14.3)	556 (10.4)	556 (10.4)	937 (-2.7)	554 (20.9)	820 (-12.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636 (7.8)	1,700 (3.9)	1,747 (2.8)	1,747 (2.8)	1,712 (0.7)	1,651 (1.9)	1,787 (4.4)	1,751 (6.1)
소비자물가지수	105.7 (0.5)	104.0 (2.5)	109.3 (5.1)	109.3 (5.1)	110.2 (4.8)	110.3 (4.8)	113.5 (3.0)	113.8 (3.1)
실질임금증가율	0.5	2.0	-0.2	-0.2	-2.6	0.8	-2.4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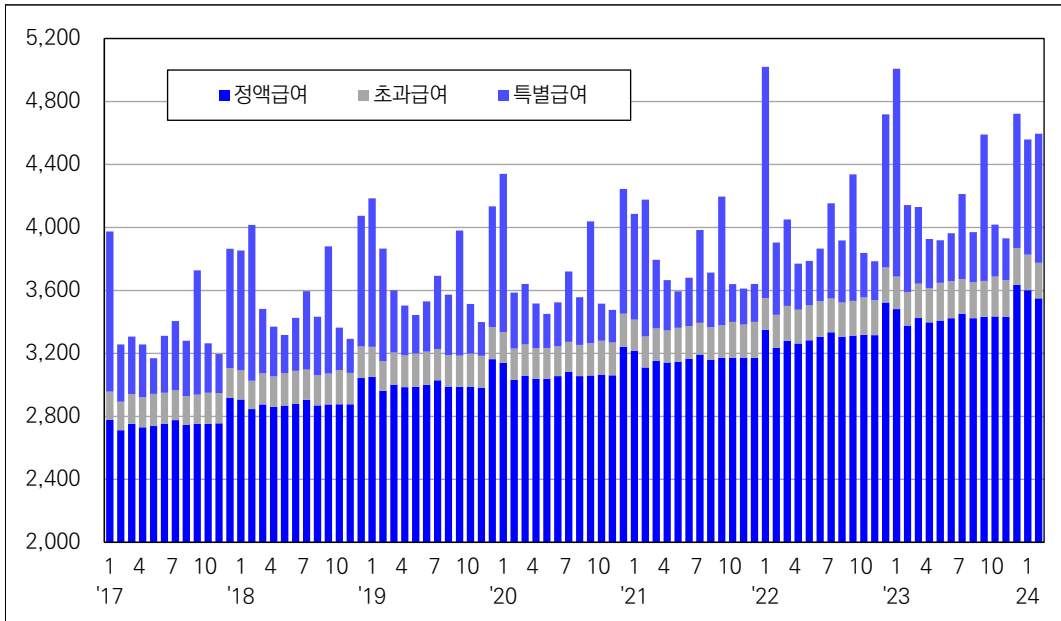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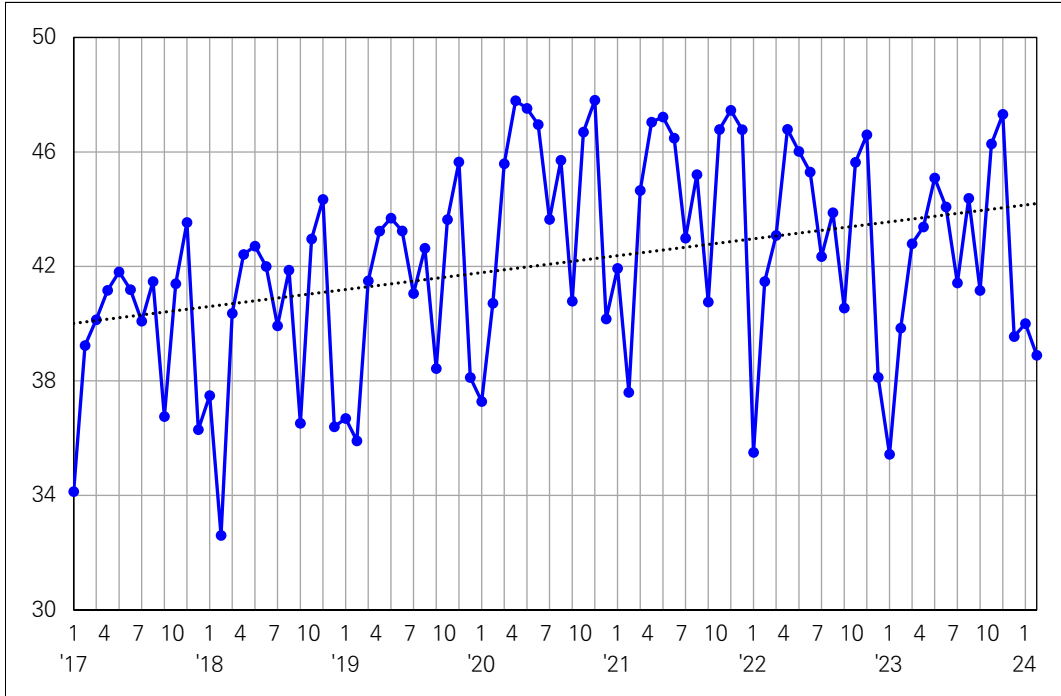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2월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폭 둔화는 특별급여 감소 영향

○ 2024년 2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380만 9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2.0% 상승,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701만 3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0.1% 상승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영향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이 컸음.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5.7%, 10.1% 상승하였음.
- (1~2월 평균)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3.1%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특별급여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7% 하락하였고, 특히 대규모 제조업 사업체의 특별급여 하락폭(-36.5%p)이 컸음.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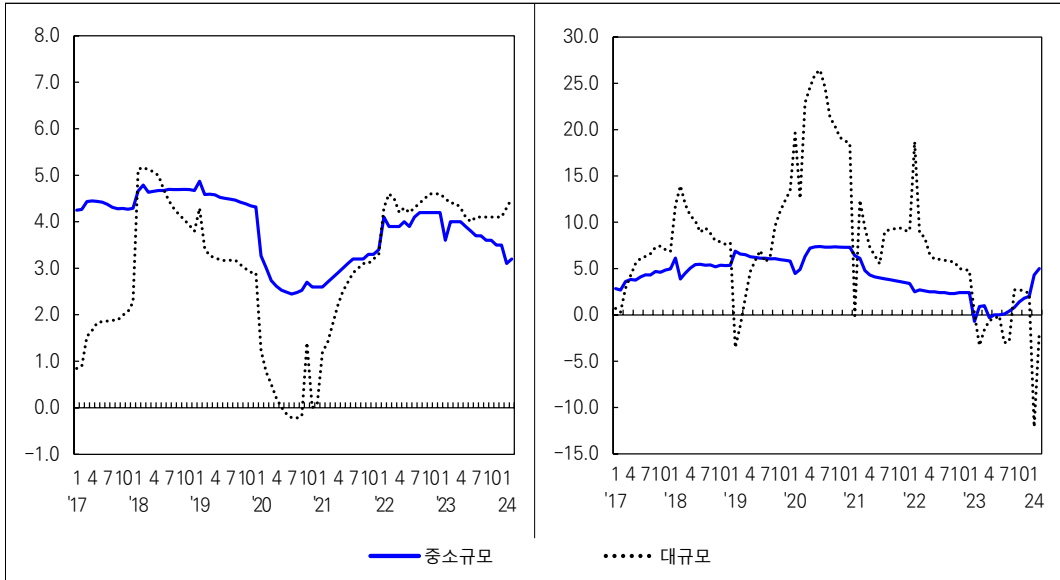
		2022	2023	2023		2024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소 계	3,462 (4.4)	3,537 (2.2)	3,634 (2.0)	3,399 (2.9)	3,746 (3.1)	3,809 (12.0)
	상용임금총액	3,675 (4.7)	3,767 (2.5)	3,876 (2.4)	3,620 (3.3)	3,995 (3.1)	4,070 (12.4)
	정액급여	3,139 (4.2)	3,249 (3.5)	3,233 (4.0)	3,198 (4.3)	3,335 (3.2)	3,300 (3.2)
	초과급여	186 (5.7)	187 (0.8)	170 (-2.2)	172 (-3.3)	185 (9.1)	186 (8.1)
	특별급여	350 (8.7)	331 (-5.3)	473 (-5.4)	250 (-3.6)	474 (0.3)	584 (133.8)
	임시일용임금총액	1,711 (2.4)	1,746 (2.0)	1,663 (0.9)	1,607 (2.7)	1,747 (5.0)	1,699 (5.7)
대규모	소 계	5,922 (6.1)	6,071 (2.5)	7,566 (1.4)	6,369 (12.2)	7,136 (-5.7)	7,013 (10.1)
	상용임금총액	6,049 (6.4)	6,212 (2.7)	7,755 (1.7)	6,512 (12.7)	7,309 (-5.7)	7,170 (10.1)
	정액급여	4,155 (4.6)	4,325 (4.1)	4,326 (4.4)	4,191 (4.2)	4,520 (4.5)	4,387 (4.7)
	초과급여	377 (5.5)	406 (7.6)	383 (6.6)	387 (5.2)	409 (6.7)	413 (6.7)
	특별급여	1,516 (11.8)	1,481 (-2.3)	3,045 (-2.5)	1,934 (39.1)	2,381 (-21.8)	2,370 (22.6)
	임시일용임금총액	2,321 (4.8)	2,375 (2.3)	2,456 (-3.3)	2,340 (-6.9)	2,410 (-1.9)	2,575 (10.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2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확대

- 2024년 2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20.0%), 교육서비스업(17.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14.7%) 순이었음.
- － 이 산업들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음(금융 및 보험업(54.6%), 교육서비스업(276.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289.9%).
- － 2월 기준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02만 9천 원)이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1만 3천 원)이었음.
- － (1~2월 평균)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임금이 전년동평균대비 상승하였음. 제조업은 특별급여 감소폭 확대 및 정액급여 증가폭 둔화로 인해 전년동평균대비 -5.0% 하락하였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2	2023	2023		2024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3,869 (4.9)	3,966 (2.5)	4,297 (2.1)	3,901 (5.6)	4,320 (0.5)	4,351 (11.5)
광업	4,608 (4.4)	4,636 (0.6)	4,707 (1.2)	4,136 (0.3)	5,056 (7.4)	4,698 (13.6)
제조업	4,484 (5.8)	4,633 (3.3)	5,400 (2.0)	4,542 (8.5)	5,132 (-5.0)	5,003 (10.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07 (2.3)	7,188 (4.1)	7,545 (26.4)	8,742 (59.7)	7,996 (6.0)	8,433 (-3.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168 (1.8)	4,297 (3.1)	4,244 (2.5)	3,914 (1.5)	4,432 (4.4)	4,488 (14.7)
건설업	3,229 (4.0)	3,359 (4.0)	3,402 (3.8)	3,173 (5.3)	3,555 (4.5)	3,522 (11.0)
도매 및 소매업	3,773 (6.3)	3,921 (3.9)	4,076 (5.2)	3,738 (4.8)	4,224 (3.6)	4,258 (13.9)
운수 및 창고업	4,040 (6.5)	4,185 (3.6)	4,281 (5.7)	4,145 (11.0)	4,395 (2.7)	4,631 (11.7)
숙박 및 음식점업	2,004 (5.2)	2,097 (4.7)	2,123 (7.2)	2,042 (7.0)	2,215 (4.3)	2,213 (8.4)
정보통신업	4,999 (4.2)	5,120 (2.4)	5,628 (-0.3)	5,319 (8.1)	5,878 (4.4)	5,958 (12.0)
금융 및 보험업	7,324 (5.2)	7,338 (0.2)	8,859 (-1.2)	7,523 (0.7)	8,860 (0.0)	9,029 (20.0)
부동산업	3,086 (4.5)	3,117 (1.0)	3,183 (-2.1)	3,018 (-5.5)	3,259 (2.4)	3,224 (6.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76 (5.3)	5,464 (1.6)	5,787 (2.1)	5,597 (9.1)	5,851 (1.1)	6,179 (10.4)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584 (3.7)	2,687 (4.0)	2,723 (3.3)	2,616 (4.9)	2,834 (4.1)	2,850 (9.0)
교육서비스업	3,435 (2.4)	3,508 (2.1)	3,779 (1.6)	3,387 (1.8)	3,893 (3.0)	3,981 (17.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2 (3.6)	3,132 (0.3)	3,189 (0.1)	3,006 (-0.7)	3,282 (2.9)	3,341 (11.2)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77 (2.8)	3,058 (-0.6)	3,264 (0.7)	2,944 (-3.7)	3,306 (1.3)	3,249 (10.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832 (4.9)	3,009 (6.2)	3,102 (6.0)	2,866 (4.6)	3,191 (2.9)	3,285 (14.6)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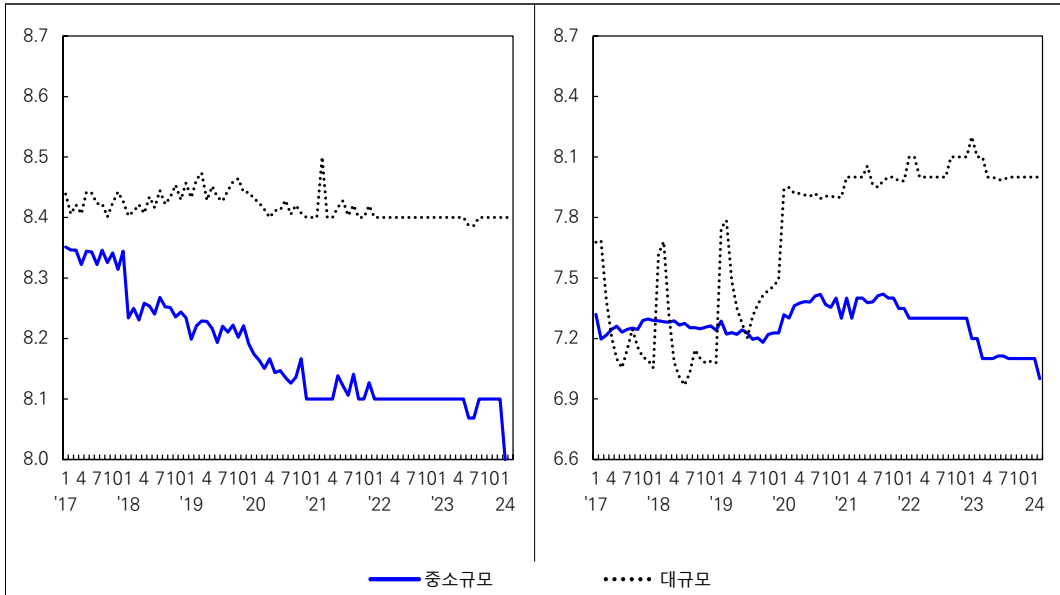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2월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 감소(-1일) 등 영향

- 2024년 2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5.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3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152.5시간)과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82.4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7.5시간, 4.7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음.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144.6시간)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150.7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7.4시간, 6.9시간 감소하였음.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58.3(-1.2)	155.3(-1.9)	152.5(2.6)	152.0(7.7)	154.3(1.2)	144.6(-4.9)
	상용 총근로시간	165.9(-1.1)	164.0(-1.1)	160.5(3.5)	160.2(8.8)	163.0(1.6)	152.6(-4.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2(-1.2)	156.7(-0.9)	153.9(4.2)	153.6(9.9)	156.0(1.4)	145.7(-5.1)
	상용 초과근로시간	7.7(0.0)	7.3(-5.2)	6.6(-9.6)	6.6(-10.8)	7.0(6.1)	6.9(4.5)
	임시일용 근로시간	96.4(-1.0)	88.2(-8.5)	87.2(-6.9)	85.2(-3.6)	84.1(-3.6)	80.5(-5.5)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4(-1.2)	160.5(0.1)	157.6(4.6)	157.6(10.6)	160.4(1.8)	150.7(-4.4)
	상용 총근로시간	161.7(-1.0)	162.1(0.2)	159.0(4.9)	159.0(11.0)	162.0(1.9)	152.1(-4.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6(-1.1)	150.9(0.2)	148.2(5.3)	148.3(12.2)	151.0(1.9)	141.0(-4.9)
	상용 초과근로시간	11.0(-0.9)	11.2(1.8)	10.8(0.0)	10.7(-3.6)	11.0(1.9)	11.1(3.7)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0(-2.3)	117.5(-5.9)	118.4(-4.1)	117.3(-1.1)	118.2(-0.2)	112.4(-4.2)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2월 모든 산업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감소

- 2024년 2월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여가 관련 서비스업(-6.5%), 교육서비스업(-5.9%), 도매 및 소매업(-5.8%) 순이었음.
-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160.0시간), 제조업(158.9시간) 순이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0.8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158.7(-1.2)	156.2(-1.6)	153.4(3.0)	152.9(8.1)	155.3 (1.2)	145.6(-4.8)
광업	174.8(-2.8)	168.5(-3.6)	163.9(0.7)	163.4(5.8)	165.9 (1.2)	156.8(-4.0)
제조업	171.1(-1.4)	170.5(-0.4)	166.6(3.9)	166.7(9.8)	170.1 (2.1)	158.9(-4.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8.6(-1.9)	160.0(0.9)	160.9(3.3)	160.4(10.3)	156.2 (-2.9)	156.4(-2.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4.4(-1.4)	170.0(-2.5)	167.2(1.4)	165.1(5.2)	169.5 (1.4)	160.0(-3.1)
건설업	134.3(-1.2)	128.7(-4.2)	126.3(-0.6)	125.2(5.3)	128.2 (1.5)	120.8(-3.5)
도매 및 소매업	162.3(-0.9)	159.2(-1.9)	157.3(3.1)	157.0(8.2)	158.1 (0.5)	147.9(-5.8)
운수 및 창고업	160.6(0.2)	160.6(0.0)	156.8(3.8)	155.7(8.4)	159.4 (1.7)	151.1(-3.0)
숙박 및 음식점업	146.5(-1.3)	138.8(-5.3)	136.7(-0.4)	135.0(3.4)	137.2 (0.4)	130.5(-3.3)
정보통신업	162.7(-0.9)	162.2(-0.3)	159.1(4.7)	159.1(10.6)	163.0 (2.5)	152.0(-4.5)
금융 및 보험업	159.8(-1.3)	159.3(-0.3)	158.0(6.3)	157.8(12.0)	160.0 (1.3)	148.8(-5.7)
부동산업	169.4(-1.4)	167.5(-1.1)	164.0(3.0)	162.5(6.7)	166.6 (1.6)	157.6(-3.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3(-0.8)	158.8(-0.9)	155.9(4.3)	156.1(10.9)	158.5 (1.7)	147.5(-5.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9.8(-1.4)	158.2(-1.0)	155.4(2.8)	154.3(7.4)	158.2 (1.8)	148.7(-3.6)
교육서비스업	136.1(-0.8)	135.9(-0.1)	132.0(4.2)	132.6(9.2)	132.6 (0.5)	124.8(-5.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3(-1.9)	150.7(-3.0)	147.5(1.2)	147.1(5.7)	148.8 (0.9)	139.5(-5.2)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0.8(-1.2)	148.2(-1.7)	146.0(4.0)	145.5(8.7)	144.6 (-1.0)	136.1(-6.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1.3)	160.3(0.0)	157.8(4.0)	156.6(8.8)	158.8 (0.6)	148.4(-5.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0건
 - － 4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9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2024년 4월 조정성립률 50.0%
 - － 4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66.7%보다 16.7%p 낮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4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4. 4	10	8	3	0	3	3	0	3	2	0	6	50.0%
2023. 4	9	8	4	1	3	2	0	2	0	2	5	66.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 4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와 같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3년, 2024년 4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4. 4.	0	0	0	0	0	1
2023. 4.	0	3	3	0	0	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15건
 - 4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69건)보다 46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1.4%(4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8.6%(158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4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4	215	201	34	9	107	5	23	23	560
2023. 4	169	154	34	5	76	6	17	16	43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6건
 - 4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3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8.6%(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1.4%(5건)를 차지함.

〈표 4〉 2023년, 2024년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4	6	7	2	0	4	1	0	0	9
2023. 4	3	5	2	0	3	0	0	0	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정부기관 공무원 10명 중 4명 ‘월급 220만 원 미만’

- 4월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기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음.
-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1%가 월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음.
- 그중 25.4%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 200만 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월 22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계산해 보니 7.4년이나 됐음.
- 응답자의 91.3%는 스스로를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바라보고 있었으나 ‘공무 수행 노동자로 존중받는지’ 묻는 질문에는 38.6%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 대우받는지’에 대해서는 24.2%만이 ‘그렇다’는 답을 했음.
- 노조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정부기관 공무원 8,3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정부기관 공무직은 입법·행정·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임.

◆ 공무원 4명 중 1명만 ‘정시퇴근’

- 4월 30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집계됐고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42.7%였고, 이는 5년 전 조사(56.8%)에 비해서는 14.1%포인트 감소했음.
-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3%가 이직을 고민한다고 답했음.
- 사유는 ‘낮은 급여수준’이 51.2%, ‘과도한 업무량’이 9.8%, ‘경직된 조직문화’가 8.7%였음.
- 응답자의 41.5%는 공직생활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고,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21.3%에 그쳤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9명 “임금체불 경험”

-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음.
- 이주노동자가 경험한 임금체불 횟수는 1회가 90.8%로 가장 많았고, 2회 체불 경험은 체류자격별로 제조업 6.2%, 방문취업 7.4%였음. 미등록이 16.7%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음. 평균 체불액은 663만 원이었음.

- 체불임금 종류를 보면 월급 전액이 55.7%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34.3%, 미사용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16.9%와 16.4%를 차지했음.
- 임금체불 이유로는 '사업주가 법 위반을 알면서도 임금체불'(37.6%)을 하거나,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여서'(35.6%), '상습적인 체불 사업장'(34.9%) 등 대부분이 비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응답했음.
- 임금지급 요청 시 사업주 반응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음'(35.1%), '사업주가 연락을 피하며 회피함'(33.8%), '사업주가 별도로 대응하지 않음'(32.2%),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28%) 순으로 답했음.
- 설문조사는 7월 24일~9월 8일 이주노동자 37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 90%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 체류자격별로는 제조업 85%, 농축산업 96.5%, 어업·선원·방문취업 100%로 나타났음. 업종별로는 농축산업(93.1%)과 어업(92.6%)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졌음.

◆ 울산 동구 조선 하청노동자 89% “저임금 해결 시급”

- 5월 13일 울산 동구가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분석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 1순위로 임금인상(89.4%)이 뽑혔고 성과금 동일적용(59.3%), 정규직 채용(33.7%), 근속 보장(18.7%)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동구 조선업 종사자는 총 4만 1,584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1만 8,667명이고 사내협력사 소속은 2만 2,917명(303개사)이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3년 임금은 23만 8천 원 증가해 331만 원 수준인데, 응답자들이 원하는 적정임금은 438만 원으로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났음.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낮은 임금'이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 30.9%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4대 보험이 미납된 경우가 있다고 답한 경우도 36.4%나 됐음.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음.
- 실태조사는 2023년 2~3월 하청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250명), 집단심층면접(21명), 일대일 면담조사(6명) 방식으로 진행됐음.

◆ 고용상 성차별 10건 중 시정명령 2건분

- 5월 19일 직장갑질 119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의 시정신청 처리 현황을 공개했음.
- 2022년 5월 제도 도입 후 약 2년간 접수된 차별 시정신청 91건 중 남녀고용평등법 26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그쳤음.
- 채용·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데,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청이 접수한 고용상 성차별 신고 274건 중 시정 완료는 19건(6.9%), 기소 의견 송치는 9건(3.1%)에 불과했음.
-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접수된 91건 중 진행 중인 사건 12건을 제외하면 79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43건은 취하·조정됐다”며 “실제 판정을 받은 45건 중 21건(46.7%)이 인정됐다”고 반박했음.
-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지속적 확충을 통해 2022년 26.3%에서 올해 33.7%로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배달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 발표 토론회 “알고리즘·폭우 등 위험 평가해야”

- 4월 2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 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 2023년 1~8월 국내 기업 산재 승인 건수 자료를 보면 1위 우아한청년들은 1,273건으로 2위 현대중공업(521건), 3위 대우건설(46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 사고 빈발 업종임에도 배달원은 고용주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보니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모호한 상황임.
- 한노보연 등은 △준비 관련 요인 △운전 관련 요인 △인간공학 요인 △운전 외 이동 △직무 스트레스 △앱·알고리즘 △휴게공간 등 7개 영역의 총 38개 문항을 정해 배달원 860여 명에게 위험의 중대성·가능성을 묻는 위험성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음.
- 그 결과 ‘비·눈·낙엽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12.94점), ‘다른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2.62점), ‘본인의 위험 운전’(11.71점), ‘운전 중 앱을 터치·조작하느라 위험’(11.57점), ‘폭설 등 위험 상황에서 운전하게끔 유인하는 프로모션’(10.96점) 등 11개가 10점이 넘는 ‘중대한 위험’으로 꼽혔다고 밝혔음.

◆ 유통노동자 10명 중 9명 “한 달에 두 번 이상 일요일 출근”

- 5월 2일 서비스 연맹은 지난 3~4월 유통분과 노조 조합원 2,516명을 대상으로 주말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 결과 응답자 90.1%가 월 2회 이상 주말에 일한 것으로 조사됐고, 주말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 1회 한다는 응답은 5.6%였음.
- 이런 결과는 전체 노동자의 주말근무 현황과 대비됨. 안전보건공단의 6차 근로환경조사(2020년)에 따르면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 노동자 비율은 79.7%임.
- 유통노동자들은 주말 연차 사용도 제한받고 있었음. 주말에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더니 “잘 사용할 수 없는 편”과 “매우 사용할 수 없는 편”이라는 답변 비율이 각각 24.9%와 10.1%로 나타났음.

◆ 직장인들이 준 尹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 ‘41.1점’

- 5월 5일 직장갑질 119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직장인들이 매긴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41.1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음.
- 직장인 3명 중 1명(35.2%)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전체 응답자의 24.9%는 41~60점, 18.4%는 61~80점으로 평가했음. 21~40점은 14.6%였으며 81~100점을 준 응답자는 전체 직장인의 6.9%에 불과했음.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20점 이하의 점수를 준 비율이 40%에 달했음.
- 여성, 비정규직, 20대와 임금 300만 원 미만 응답자 그룹에서 전년대비 평균 점수가 4점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음.

◆ 최저임금 노동자 80% “저임금 탓 결혼·출산 망설여”

- 5월 8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교육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등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인 노동자 5,46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 임금 수준은 기본급, 식대 등 고정적인 수입을 전부 더할 때 월 실수령액이 22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세 명 중 두 명(67.3%)꼴이었음.
- 특히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2,235명) 중에도 절반가량(56.5%·1,257명)이 최저임금 언저리인 220만 원 이하 임금을 받았음.

- 설문 응답자의 85.5%는 지난해 인상률(2.5%)이 부적절하다고 봤으며,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40.7%), 가구 생계비(31.5%), 경제 성장률(14.0%)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었음.
- 낮은 임금 등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79.8%에 달했음.
- 이날 노조는 “물가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